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더디지만 꾸준히 가야 할 길

박래군(사무국장)

저는 이번 3월부터 개편된 조직체계에 의해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한해 동안은 <인권하루소식> 편집을 맡아 일했습니다. 가끔 <인권하루소식> 기사 취재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전화도 하고, 함께 할 자리에서 만나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전화 통화 한번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또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사무국이 일체를 이루는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디지만 꾸준히, 집요하게 인권운동의 초석을 놓아가는 것, 이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임무라고 할 때, 저는 항시 이런 문제의식을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만들어가야 할 운동가의 한 사람임을 자각합니다.

지난해 매일처럼 밤 10시를 전후하여 퇴근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같은 작은 단체가 이루려는 정보자료실의 모습이 어느 때나 제 모습을 찾을까 걱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전인미답의 인권교육이 과연 다른 주제로 하는 강좌로 진행내 나갈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희미하기만 하던 이 일들을 점차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한국 사회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풍토가 거의 없는 한국적 상황에서 유일무이하게 전문적인 인권운동을 고민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저는 우리의 운동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사랑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직에 활력이 없다, 현장성이 없다, 인권운동의 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지적에 대해 뇌리에 확실히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아마 맞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우리 사랑방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히 겪고 또한 이겨내야 할 문제들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머리와 목소리로 한국인권운동,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래설계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실상부한 인권전문센터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권운동의 전문화·대중화·국제화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목표를 향해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사업보고

(2월 세째주~3월 들째주)

\*\*\*\*\*

## □ 사무국 인선, 사업계획 확정 -25차(2월22일), 26차(3월8일) 운영위 보고

### 1. 주요 사업계획

#### (1) 홍보실 <인권하루소식>

- 4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하루소식, 주간 영문판 소식 서비스 시작
- 합본호 발간(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묶을 것인가는 미확정)
- 9월7일 창간 3주년, 9월 하루소식 독자배가운동

#### (2) 정보자료실

- 3월, 컴퓨터 온라인 인권법률상담실 개설
- 5월, 통신 자료 서비스 시작
- 정보화사회와 인권 강좌 진행(월 1회)
- 52차 유엔인권위, 주거권 회의, 고문관련 자료 수집

- 단행본, 논문 등 확보

- 취약 주제 자료 확보

- 97년부터 자료 본문 검색 통신 서비스 시작

#### (3) 교육, 출판실

- 2월, 2기 공개강좌 자료집 출판
- 5월, 국제인권법, 재소자의 권리 책 출판
- 7.8월, 대학생 실습교육
- 7월, 고등학생 인권캠프
- 9월부터 공개시민강좌(12강좌)
- 12월 인권교재 2권, 시민강좌 자료집 발간

#### (4) 국제연대

- 고문방지조약 민간보고서 작성
- 유엔인권위 모니터 등

### 2. 사무국 직제 개편과 인선

- 사무국장; 박래군
- 하루소식; 김수경, 엄주현, 이창조
- 정보자료실; 강기훈, 최은아
- 총무부; 총무 김정희  
국제연대 안미혜

### 3. 기타

-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3월에 1차로 자문위원

배가운동을 운영위원 중심으로 전개키로 함. 운영위원은 1인당 2인(월 10만원)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3,4월중에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독자배가운동은 9월에 전개합니다.

- 이창조씨를 정식 상근간사로 채용. 이창조씨는 서울대 정치학과 88학번으로 지난해 말 인권운동사랑방과 인연을 맺어 지난 2월부터 매일 하루소식 기자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 노태훈씨 6개월 장기휴직 승인. 장기휴직시 2개월전 휴직 신청,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장기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차기 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백승현 운영위 간사의 집들이를 겸해서 열립니다.

## □ 노태훈씨 6개월간 휴직

노태훈씨가 지난 3월1일부터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노태훈씨는 잠시 돈벌이를 하다가 오는 9월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또, 노태훈씨는 지난 2월말 자신과 닮은 첫 딸을 얻었습니다.

## □ 김수경씨 30일 결혼

<인권하루소식> 편집을 맡고 있는 김수경씨가 오랜 연애평정을 끝내고 오는 3월30일(토) 오후2시 청량리 결혼회관에서 백승호씨와 결혼합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 □ 장호순 운영위원 카투만두 PP21 참가

장호순 운영위원(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연구원)이 지난 6일, 네팔 카투만두에서 열리는 제3차 PP21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장위원은 회의등에 참가하였다가 1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 □ 강경선 부위원장 인도에서 현지 적응

강경선 운영위 부위원장님이 인도 현지에서 비교적 빠르게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의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강경선 부위원장님의 주소는 13-27, Hill View Apts, Vasant Vihar, New Delhi 110057 INDIA 입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5호 1만원(독자 5천원) 판매

□ 정보자료실 인권법률상담 계속 늦어져  
정보자료실에서 추진중인 온라인 통신 인권법률  
상담이 내부 준비는 다 되었으나, 한국통신 쪽의  
문제로 아직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상담실의 실장은 윤기원 운영위원이 맡고, 부실  
장은 조광희 변호사가 맡기로 하였으며, 변호사  
34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당직  
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인권하루소식 약부호도 한국통신 측의 하이  
넷-P 메뉴 정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3개월째  
미뤄지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준비 착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망을 형성, 전세계  
2억 인구와 연결이 되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  
설하여 인권하루소식을 한글판으로 서비스하고,  
영문 주간 소식을 만들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도 그때그때 소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의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이들과  
단체와의 상시적인 연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간 영문 소식은 인터넷 통신상으로 올리는 것  
으로 장호순 운영위원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  
며, 인권하루소식 중 외국에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를 1주 단위로 선정, 번역하여 게재하  
게 됩니다. 현재 5명 정도가 함께 하게 될 것입  
니다.

□ 사무국 자체 세미나와 정보브리핑 진행  
사무국에서는 7월까지 사무국 자체 세미나를 진  
행합니다. 세미나를 거쳐서 인권운동과 인권운동  
사랑방의 전망을 세우려고 노력중입니다. 또, 격  
주로 정보브리핑 시간을 가져 서로 정보와 생활  
나누기를 할 예정입니다.

## 96-03분기 재정보고('96 02/15-03-15)

전기이월: -1,581,228원

수 입		지 출	
자문,운영위원회비	2,727,100	활동비	4,620,000
하루소식구독료	3,385,680	사업비	90,000
후 원 금	450,000	발송비	620,120
사업 수익	106,100	사무비품	323,200
은행 이자	450	사무실유지(집세포함)	612,150
기타수익	810,100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204,300
차 입 금	4,400,000	차입금상환	800,000
		전화요금	878,797
		사무기기	350,877
		기 타	447,000
<b>계</b>	<b>11,879,430원</b>	<b>계</b>	<b>8,946,444원</b>
<b>결산잔액</b>	<b>1,351,758원</b>		

<96년 2월 운영·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지로  
용지가 중간에서 분실되어 확인을 계속했으나, 아직 금융결제원에서 지로가 도착되지 않았습  
니다. 이번에 누락된 분들은 다음 호에 명단을 꼭 실겠습니다.

\*\*\*\*\*

# 자료소식

\*\*\*\*\*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의 해입니다. 이번 자료 소식에는 빈곤과 Homeless, 주택문제를 다룬 자료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 변화와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연구소/ 183쪽/ 연구보고서/ 95.12/ KO

경제구조의 고도화 속에 망각해가는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로 빈곤의 양상과 속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신빈곤(new poverty)'이란 개념을 설정해 1990년대의 고도 산업화 속에 새롭게 규정되는 빈곤의 본질을 파헤치고 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있다.

1.서론 2.신빈곤의 이해 3.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도시빈곤의 존재양식 4.고도 자본주의 속에 떠도는 도시빈민의 생산활동 5.재생산 영역에서 드러나는 빈곤의 형태와 특성 6.방치된 새로운 절대빈곤: 무주거자(The homeless)

◆ 주택과 인권/早川和男 편저, 문오영 옮김/ 304쪽/ 단행본/ 범문사/ 1995/ KO

'주거는 인권이다'는 관점에서 주택인권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주거는 인간 생활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가 빈약하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어울리는 주거는 기본적 인권이다, 또한 이 책은 영국,이태리,미국,아시아 등 세계의 주거운동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1.주택인권사상과 생활공간 2.세계의 주거운동 4.주택정책의 새로운 관점

◆ 전후사회복지의 전개와 대도시 최저변/ 岩田正美 지음/ 344쪽/ 단행본/ 미네르바서방출판국/ 95/ JA

이 글은 현대에 있어 가족의 해체, 노동력의 상실등 습관적인 주거마저도 확보될 수 없고

사회에 조직되지 않으며 사회관계로부터 배제되는 부정주적 빈곤(不定住的 貧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정주적 빈곤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접합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적고 있다.

◆홈리스(The homeless) 문제란/森川直對 지음/81쪽/ 단행본/ 산도케출판국/ 94/ JA

산업도로, 고속도로 등 산업기반 정비의 강행으로 인해 전국에서 모인 무권리 상태의 건설일용노동자가 산업합리화와 경기변동의 물결속에 도태되어 Homeless로 되는 과정과 일본정부의 조치, Homeless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빌어먹을 권리/ 박원순 지음/ 7쪽/ 샘이 깊은 물/ 95.1/ KO

"빌어먹을 권리"조차 빼앗긴 한국 부랑인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미국, 영국의 Homeless 권리찾기와 비교해서 고발하고 있다.

◆행려병자의 인권문제/ 김수경 지음/ 18쪽/ 아티클/ 95. 12/ KO

부랑인의 인권실태와 이들을 위한 복지개선 점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16쪽/ 아티클/ 94/ KO

지역, 규모에 있어 부랑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과 유럽 등 부랑인 시설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박기복 연출 푸른영상 제작/ 94.11/ 비디오테이프/ 총 분

탐골공원에서 노인이나 다른 부랑인들의 슬심부름을 하며 음식이나 돈을 얻어 사는 김진석(남 43세)씨와 써커스단원으로 한쪽 다리를 저는 이정자(남, 60세)씨의 하루를 스케치하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일선에서 낙오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어엿한 삶의 가치를 지닌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